

홍화

우리 나라 각지에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중남부 지방이 더 적당하며, 개화할 때 비가 적을 수록 좋다. 토질은 배수가 잘 되는 모래참흙이 가장 좋으나, 건조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재배가 가능하다.

재배법

잇꽃은 씨앗으로 번식한다. 사이짓기가 적당하고 6~7월에 파종해도 그 해 안으로 수확할 수 있으며, 따뜻한 지방에서는 가을에 파종을 했다가 그 이듬해에 수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른 작물이 흉작일 때 대신 파종을 하는 데도 적당하다. 이른봄에 눈에 재배했다가 수확을 한 후에 뼈를 심어도 좋다. 뿐만 아니라 이 꽃은 1개월 동안이나 계속 개화하므로 매우아름다운 정경을 이룰 수도 있다. 씨에는 양질의 기름이 들어 있어 기름 목적으로도 재배되나 아직은 유효하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씨뿌리기>

씨 뿌리는 시기는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는 가을, 중부 지방에서는 4월 초순경이 적당하다. 봄에 파종한 것은 줄기와 잎이 완전히 자라지 못하고 꽃

이 피게 되므로 가을에 심은 것보다 수량이 적다.

밭은 깊이 간 후 10a당 두엄 600kg, 용과린 12kg, 나무재 19kg을 밑거름으로 주고 두둑 사이 60cm 간격으로 줄뿌림한다. 이 때의 씨앗 소요량은 10a당 3.6ℓ 정도이다. 씨를 뿌린 후에는 1.5~1.8cm 두께로 흙을 덮어 준다.

<관 리>

씨앗을 뿌린 후 10일 내외가 되면 싹이 튼다. 싹이 나오고 떡잎이 커졌을 때 뻗은 곳은 솎아 주되 포기사이 15cm 간격으로 한다. 키가 6~9cm에 달했을 때 북을 돌아 주어 바람에 쓸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동시에 덧거름을 1~2회 얹게



<수확과 조제>

우리 나라 중부 지방에서는

씨뿌리는 시기는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는 가을, 중부지방에서는 4월 초순경이 적당하다.

가을파종, 이듬해 수확가능 배수잘되는 모래 참흙땅에

해서 준다. 만약 질소 성분이 많게 되면 줄기와 잎이 오그라드는 병 즉 위축병이 생기기 쉬우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위축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르도액을 살포해서 병의 만연을 방지해야 하며, 진딧물이 발생했을 때에는 피리모 등의 약제로 이슬이 있을 때 한두 번 살포하면 구충이 된다.

봄에 파종하면, 6월 하순경부터 꽃이 핀다. 꽃빛은 처음에는 노랑색인데 차차 붉어졌다가 나중에는 검붉은색으로 변한다. 꽃잎의 수확 시기는 꽃이 붉은색으로 변했을 때가 적당하며, 너무 빠르거나 늦으면 품질이 불량하다. 수확 시간은 아침 이슬이 마른 직후 즉 오전 9~10시경이 좋다. 이보다

빠르면 꽃잎에 이슬이 채마르지 않아서 꽃잎이 한데 뭉쳐지므로 품질이 나빠지고, 너무 늦으면 잎과 꽃받침의 가시가 억세게 되어서 손을 찌르게 된다.

수확한 꽃잎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종이로 깔고 건조시킨 후 커다란 종이봉지에 넣어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저장한다. 약 15kg 내외의 말린 꽃잎을 수확 할 수 있다.

채종 목적일 때에는 꽃잎을 딴 후 그대로 두어 결실된 후에 베어서 벌에 말린 다음 씨를 털면 된다. 씨의 수량은 10a당 60kg 정도이다.

생육기간 길어 남부지방이 적지

산약

마는 생육기간이 길수록, 장일보다 단일에서 덩이뿌리의 비대가 잘되기 때문에 남부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땅심이 깊고 배수력이 좋으며 유기물 함량이 많은 참흙이나 모래 참흙에서 잘 자란다. 발아기간이 한달 정도로 길기 때문에 발아를 촉진시켜 주어야 생육기간이 연장되어 증수된다. 마의 절편을 에세폰 1백ppm(1만배액)에 30~60분간 담궜다가 그늘에서 말린 다음 심으면 발아가 촉진되고 발아율도 높아진다.

10a당 퇴비 2천kg, 질소 15kg, 인산 13kg, 칼리 15kg을 뿌리고 깊이 갈아 엮은 다음 폭 30cm의 두둑을 만들어 포기사이 5~10cm로 한알씩 심는다. 복토는 3cm 정도로 하고 가볍게 눌러준다.

정식이 끝나면 잡초방제를 위하여 10a당 씨마네스화제 3백50g을 물 1백~1백20ℓ에 타서 골고루 뿌려주고 자라면 덩굴이 타고 올라가도록 덕을 만들어 유인해 주어야 한다. 덕의 간격은 적당하게 하고 지주를 1.5~1.8cm 높이로 세운뒤 오이망을 씌워 주면 편리하고 좋다.

수확시에는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곳에 예비저장하였다가 상처가 아물면 모래나, 병균에 감염되지 않은 산흙을 이용하여 뿌리가 서로 닿지 않도록 옮겨장한다.

토양은 뿌리가 곧고 길게 뻗으므로 토심이 40~50cm 되어야 좋다. 부식질이 많은 모래참흙 땅으로 물 빠짐이 잘되는 곳으로서 가뭄이 계속될 때 물을 덜 수 있는 곳이면 이상적이다.

토심깊은 곳에 저온처리후 파종

더덕종자는 발아가 잘 되지 않으므로 휴면기간(채종후 1백20일 정도)이 지난다음 2~5℃에서 7일 이상 저온처리한 후 파종하거나 노천

내한성이 강하므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지만 햇빛이 잘드는 양지쪽이 좋다.

가을파종은 11월 초 중순에, 봄 파종은 3~4월중에 실시한다. 파종은 폭 90~130cm의 두둑을 만들

김매기는 잡초크게 자라기 전에

고 6~9cm로 골뿌림하거나 흩어뿌림을 한다. 종자를 고르게 뿌리기 위해 종자량의 3~4배의 톱밥이나 가는 모래와 잘 혼합하여 뿌린다.

을 1:2(용량비)로 고루 섞어서 채로 친 상토로 종자가 보이지 않게 0.5cm 정도의 두께로 흩뿌림을 해 주고 짚이나 건초를 덮어주어 순을

10a당 종자 소요량은 3~4ℓ.

파종이 끝나면 얇게 복토한후 벗

사삼

매장했다가 파종해야 한다. 파종후 잘 썩은 퇴비와 모래참흙

길경

10a당 종자 소요량은 3~4ℓ. 파종이 끝나면 얇게 복토한후 벗

홍화의 효능

잇꽃은 초롱꽃목 국화과에 딸린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 풀이다. 보통 홍화라고 부르며 이포 자홍화 약화 등 10여 가지의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잇꽃은 꽃과 씨를 모두 약용으로 쓴다. 꽃은 약성이 따뜻하며 피를 다스리므로 어혈 통경약으로 쓰고 또 식료품이나 화장품, 의류의 염료로도 사용한다.

잇꽃은 한방에서 흔히 쓰여왔으나 절골, 파골, 쇄골치료의 묘약인 잇꽃씨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잇꽃의 기운이 뭉쳐서 씨가 되는데 그 씨에는 뼈에 꼭 필요한 약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홍화씨 복용법

심한 골절이면 1냥 반쯤(55g), 가벼운 골절이면 1냥쯤(37.5g)을 쌀처럼 일어서 기름기 없는 프라이팬에 바삭바삭할 정도로 볶는다. 불에 타지 않을 정도로 잘 볶아서 가루 내어 진하게 달인 생강차와 함께 반 손갈씩 밥먹기전에 복용하되 한 번에 다 먹든지 두번으로 나누어 먹는다.

홍화씨를 쓸때 주의할 점은 복용하고 나서 열 다섯시간 이후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다친 부위가 후끈거리거나 열이 나는등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상처부위의 붓대 또는 부목을 풀어주어 공기가 잘 소통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부위에 염증이 생겨 골수염, 골수암으로 전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지시켜줌으로써 발아를 잘 하도록 해준다.

발아가 시작되면 덮어주었던 짚을 완전히 걷어주어야 한다.

본엽 3~4 매시, 2.0~2.5cm 정도의 지주를 세워 덩굴 올리기를 해줌으로써 통풍과 햇빛을 잘 받아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수확할 때는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캐내고 큰 뿌리와 작은 뿌리로 구분해서 작은뿌리는 1년간 더 재배하여 수확한다.

kg을 넣고 질소 9kg, 인산 18kg, 칼리 15kg을 발전면에 고루 뿌리고 같이하여 두둑을 짓고 정지하였다가 파종한다. 웃거름은 생육상태를 보아 가면서 6월 하순경 꽃대가 올라올때와 장마가 끝나가는 7월 하순에 질소비료를 준다.

김매기는 잡초가 크게 자라기 전에 실시해야 어린모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본잎이 3~4매가 될때 포기사이 5~6cm 되도록 솎아준다. 꽃대제거는 6월 중 하순경 꽃망울이 생길때가 알맞다.